파산시 채무자에게 보장되는 면제재산 범위

박 규 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보통 파산이 선고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모조리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파산절차를 밟지 않으려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무자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빚 변제에 사용돼야 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그 처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첫 번째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채무자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필수품, 식료품, 연료 등이나 채무자가 농업이나 어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없어서는 안 될 도구(농기구, 비료, 고기잡이 도구 등), 훈장 등의 명예증표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등도 빚 변제에 쓰이지 않고 그대로 채무자가 수령해 생활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48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을 상한으로 해 이 범위 내에 있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도록 면제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또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생계비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100에 6을 곱한 금액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572만9913원이므로 약 1375만2000원까지는 생계비로 확보가 가능하다.

기존 채무자회생법 체계에서는 1110만원을 정액으로 해 상한을 뒀었는데, 2024년 6월11일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에서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위와 같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10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정률(定率)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상한이 다소 높아졌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나 6개월간의 생계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또는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직접 법원에 그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상한에 달하는 금액을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적절한 설득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한다면 채무자나 그 피부양자의 생활도 일정 수준 보호될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진 채무자라면 적극적으로 도산절차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보험과 신뢰

기자 수첩
김 주 형
〈금융부〉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란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보험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이 낮아지면서 보험업권의 신뢰 회복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이뤄지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보험금융연구에 따르면 보험에 대한 신뢰는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사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준다.

신뢰는 거래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보험산업의 생산성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보험신뢰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

다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수준은 국내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사별 신뢰수준은 은행, 신용카드사, 서민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순으로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수준은 높지 않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험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민원의 약 36%, 손해보험민원의 약 64%가 면부책 또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거치면서 보험산업의 신뢰도에 대해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산업은 신뢰산업이다. 신뢰는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금융에 대한 낮은 신뢰는 금융안전성 악화나 금융서비스 이용 감소에 따라 실물경제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구매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뢰도가 높을수록 보험사의 이익은 개선되고 고객의 이익 또한 개선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상당한 신뢰관계가 필요한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은 물론 신뢰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gh47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7일 (음 9월 5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종교가 있다고 자신의 조상제사를 외면해서야. **48년생**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태양이 있어 감사. **60년생** 얼룩진 옷은 벗어야 빨아야 해결. **72년생** 쌀 한 톨도 힘들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다. **84년생** 경쟁자가 위로한다.

소 **37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힘껏 두드려라. **49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 하라. **61년생** 깊은 밤은 찬란한 새벽을 위한 준비. **73년생** 리더를 꿈꾼다면 화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험해보도록. **85년생** 강한 의지를 갖자.

호랑이 **38년생** 가르쳐놓으니 청출어람(靑出於藍)의 보람이 있다. **50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62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으니 서운해 마라. **74년생** 서북 방향에서 시작의 귀인이 온다. **86년생** 명상의 시간을 자연에서 찾도록.

토끼 **39년생** 평생 모은 돈으로 새집을 장만하니 가슴 벅찬 날. **51년생** 조언도 사람을 봐가며 해야 할 것. **63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할 일을 찾자. **75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동업자로 새 출발. **87년생** 가족에게 필요하면 요구.

용 **40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일을 잘 풀리게 한다. **52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도 올 것이다. **64년생** 하나를 뿌리고 둘을 얻는 날. **76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하라. **88년생** 자신을 위한 일을 해라.

뱀 **41년생** 금전거래는 다툼의 요소로 변하지 않을까한다. **53년생** 격만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65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거래가 순조롭다. **77년생** 이직보다 현 직장에서 확신을 갖자. **89년생** 작은 일도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말 **42년생** 불평보다는 이해를. **54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쉬었다 가자. **66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78년생** 연인에게 너무 적극적이다 보면 멀어지게 마련. **90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매사에 조심.

양 **43년생** 자손이 인연을 만나니 마음이 흡족. **55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니 일한 보람이 있다. **67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치는 날. **79년생** 작은 것에 따지기보다는 내가 더하는 행동을. **91년생** 시작과 끝은 있게 마련.

원숭이 **44년생** 숫자 6이 행운을 준다. **56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좁은 공간을 빙빙 도는 하루. **68년생** 내키지 않는다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흔들지 마라. **80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92년생** 기술력 도전은 기회를 얻는다.

닭 **45년생** 재혼자에게 과대포장은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손실. **57년생** 분배에서 중심 잡고 일을 해야 원망을 듣지 않는다. **69년생**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자. **81년생** 물은 재물을 뜻하니 정수기를 깨끗이 사용. **93년생** 기준에 맞추는 행복은 없다.

개 **46년생** 지난 추억은 아쉬운 법이다. **58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평등하게. **70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먹이만 주지 말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82년생** 가훈을 믿고 따르면 좋은 결과가. **94년생** 모처럼 산행은 활력을 준다.

돼지 **47년생** 누구에게나 인생의 후반기는 서글픔이 존재. **59년생** 편안함을 극복하자. **71년생** 마음에서 늘상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83년생**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하는 순간 성공은 시작. **95년생** 통설이나 잡설도 약이 될 때가 있으니.

김상회의 四季

행복과 불행은 한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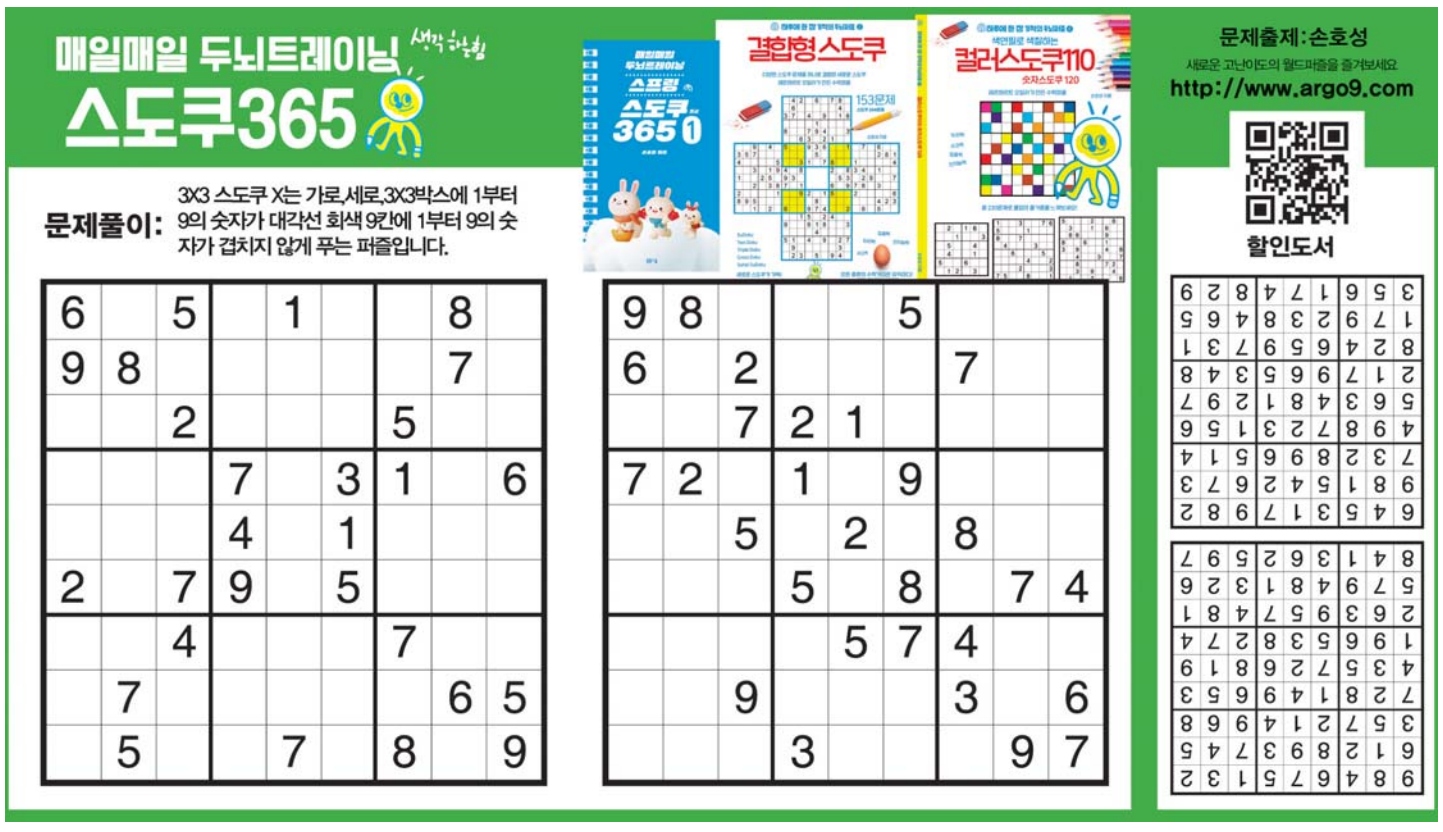
행복한 일만 생기는 그런 팔자나 평생 불운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평생 좋은 일만 생기는 사주도 평생 나쁜 일만 생기는 사주도 없길 바란다. 그런데도 사주 때문에 지나치게 실망하고 팔자를 탓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설명을 해줘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보다 좋은 사주를 부러워하며 불운에만 집착하는데 세상 모든 것은 함께 존재하고 조화를 이룬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상생이 있으면 상극도 있다. 어느 한쪽만 존재하는 건 만물의 이치가 아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고해라고 말씀했다. 고해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고통이겠으나 일이 있어야 좋은 일도 존재할 수 있다. 불교 경전 아함경에는 이런 우화가 있다. 어느 집에 누군가가 문을 두들겼다. 주인이 나가보니 다시 없는 미녀가 서 있었다. 누구냐고 물으니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미녀를 집에 들이고 조금 있으니 또 누가 문을 두들겼다. 이번에는 누더기를 걸친 추녀였다. 주인이 물으니 불행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주인이 쫓아내자 추녀는 아까 들어간 여자가 쌍둥이 언니여서 자기들은 함께 다닌다고 했다.

불행이 집에서 나가자 행복도 곧바로 집을 떠나버렸다. 행복과 불행은 고해 같은 우리 인생에 항상 함께 있다. 행복과 불행이 함께 하는 건 인생의 필연이다. 평생 행복한 일만 계속되고 정말 행복하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행복이 흔해지고 행복에 무디어지면 좋은 일이 생겨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주가 좋아도 사주가 그리 좋지 않아도 살면서 만나게 되는 행복과 불행은 비슷하다. 세상의 조화란 그런 것이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함께 찾아온다. 그건 세상의 이치일 뿐 나에게만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2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2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